

[SAS 이노베이트 2024]

AI 개발자 위한 '바이야 워크벤치' 출격... "반응 후끈, 추가 지원 모색"

2024-04-21 12:00:00 | 라스베이거스(미국)=김보민 기자



재러드 피터슨 SAS 엔지니어링 부문 수석부사장

'AI 개발자=귀한 몸'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최근 정보기술(IT) 업계에는 이런 말이 공식처럼 떠돌고 있다. 올해 들어 열기가 수그러들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여전히 역대 연봉 수식어가 붙는 경우가 다반사다.

소프트웨어(SW) 기업은 이러한 업계 흐름을 간파하기 시작했다. AI 개발자가 사용하기 쉬운 맞춤형 플랫폼을 선보여, 업계가 적은 개발자로 최대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전략을 재편한 것이다.

글로벌 데이터 분석 기업 SAS도 흐름에 동참했다. AI·머신러닝(ML) 개발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SAS 바이야 워크벤치'를 정식 출시해 판도를 뒤집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다. 2분기 아마존웹서비스(AWS) 지원을 시작으로 추후 클라우드 및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옵션도 늘려갈 계획이다.

1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디지털데일리>를 만난 재러드 패터슨(Jared Peterson) SAS 엔지니어링 부문 수석부사장은 "바이야 워크벤치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라며 "단일 패키지에서 다양한 기능과 툴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만큼 '흥미롭다'는 반응이 다수"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SAS는 지난 17일(현지시간) 글로벌 연례 행사 'SAS 이노베이트'에 맞춰 개발자를 위한 경량화 환경 '바이야 워크벤치'를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바이야 워크벤치는 클라우드 기반 확장형 환경에서 SAS 또는 파이썬 코딩을 지원하고, 주피터 노트북과 스튜디오 코드 등 맞춤형 옵션을 제공한다.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환경에서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셈이다.

피터슨 수석부사장은 2012년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SAS에 합류한 인물로, 바이야 워크벤치 출시에 깊게 관여해왔다. 짐 굿나잇 SAS 최고경영자(CEO)와도 제품 방향에 대해 가장 많이 대화를 했다고 전해진다.

피터슨 수석부사장은 "이번 출시와 관련해 추후 업데이트에 대한 여러가지 요청도 들어오고 있다"며 "바이야 워크벤치에 있어 SAS가 겨냥한 연결점은 '아마존웹서비스(AWS)'인데, 그다음 단계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바이야 워크벤치는 올 2분기 AWS 아마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처음으로 베일을 벗는다. 추후 클라우드 제공업체와 SW 지원 요인을 확장한다는 계획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피터슨 수석부사장은 "다른 클라우드 공급자들과 협업해 지원 영역을 확대하는 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피터슨 수석부사장은 이노베이트 행사에서 기업이 생산성을 높일 때 고려하는 요인으로 속도, 확장성, 클라우드 비용 등 세 가지를 꼽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개발자는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AI와 데이터로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속도와 확장성 자체에는 관심이 많지만 클라우드 비용을 이해하지는 못한다"며 "SAS는 개발자는 물론, 비용을 다루는 담당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가드레일을 제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SAS·파이썬뿐만 아니라 올해 말 R 언어도 지원할 예정인 만큼,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도 들어오고 있다. 피터슨 수석부사장은 "SAS는 (1976년 창립 이후) 48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양한 데이터와 소스(source)를 지원한 만큼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러드 피터슨 SAS 엔지니어링 부문 수석부사장이 1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SAS 이노베이트' 오픈링 세션에서 발표하고 있다.

한편 피터슨 수석부사장은 AI에 대한 시장 관심이 뜨거워진 것은 고무적이지만 무조건적인 신뢰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AI,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등을 이야기할 때 르네상스라는 평가를 내리곤 하지만, 실제 AI는 전혀 새로운 요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서도 AI에 대한 정의가 재정립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늘날 우리는 컴퓨터가 인간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로 AI를 이해하지만, 사실 컴퓨터 내부에 인간의 특성이 내재화된다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피터슨 수석부사장은 "AI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불확실성을 딛고 흥미진진하고 놀라운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김보민 기자
kimbm@ddaily.co.kr

